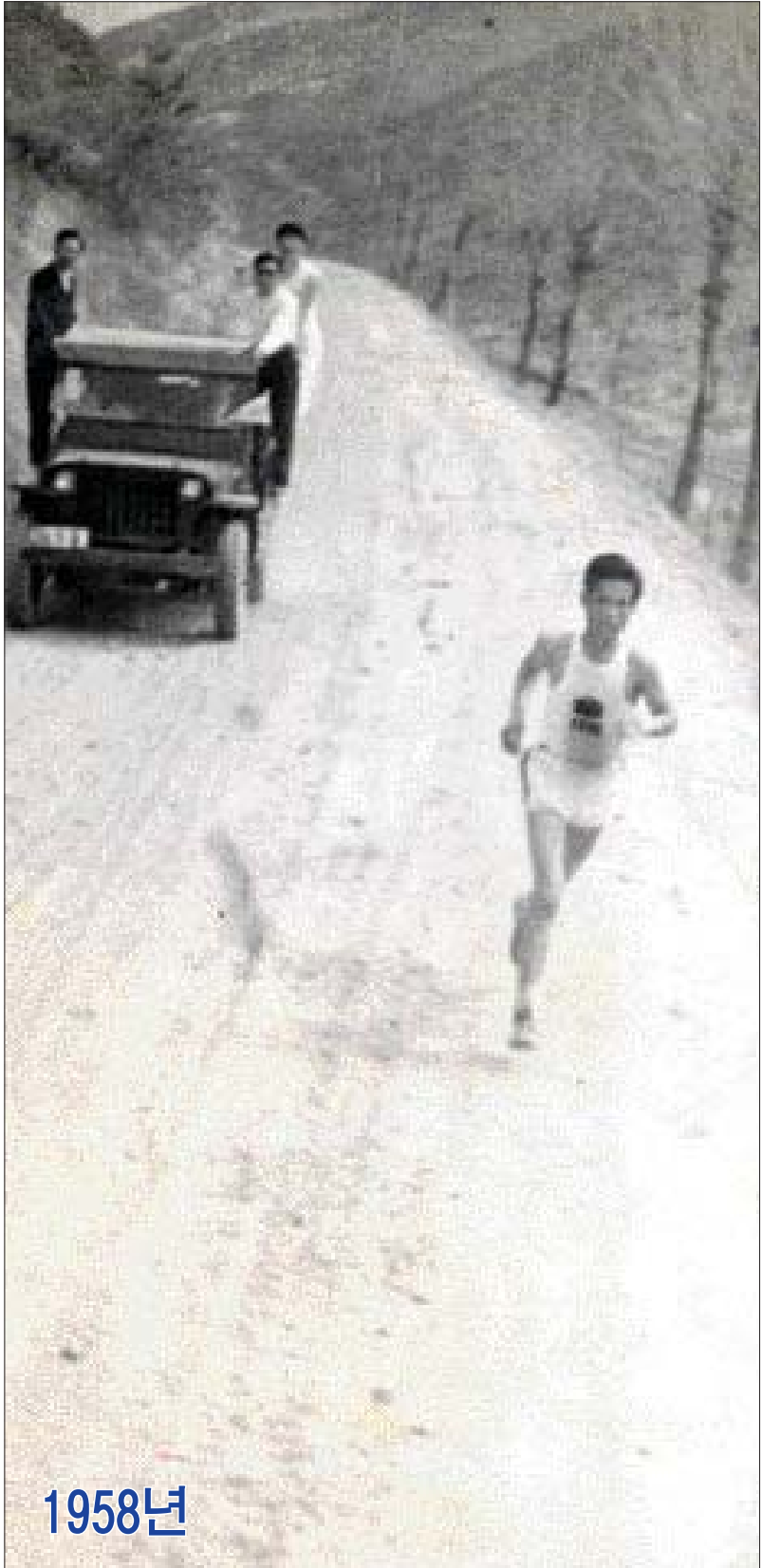


3·1절 마라톤 44년 ... 질주는 계속 된다



1958년

1958년 제 5회 대회 일반부 3위를 차지한 김용인(당시 전남대)씨가 화순 경찰서 앞 광장을 돌아 너릿재 내리막길에서 역주하고 있다.



1972년

마라톤 열기는 그때가 더 뜨거웠을까? 수많은 시민들이 연도에 몰려 골인하는 선수를 격려하고 있다.

1954년 3월 첫 출발 충성을 시작으로 호남지역의 마라톤 자존심을 지켜온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당시 전일마라톤)이 올해로 44회를 맞는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잠시 중단되었던 대회는 1970년 '3·1절기념 광·송(光·松)간 단축마라톤대회'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뒤 호남지역 마라톤 꿈나무의 산실이자 호남지역의 마라톤 축제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대회 현장이 담긴 흑백사진을 통해 한국 마라톤 역사의 한 축에 서있었던 광주일보 마라톤의 역사를 되짚어 본다.

구름 관중... 응원열기... 시민과 함께 한 '축제'

1979년 고등부 우승 육철수씨



"3·1 전국 마라톤대회는 전국 육상 스타들과 사·도민이 함께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한국중·고 육상경기연맹 이사 육철수(48·전남대사대부고 교사)씨는 3·1 마라톤이 배출한 유명인사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79년 3·1 마라톤 고등부 우승 이후, 일반부 4연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70~80년대 광주·전남 지역은 대한민국 육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역 대표로 선발되는 게 국가대표가 되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로 우리 지역 마라톤 열기가 뜨거웠고, 또 동계훈련이 끝난 후 처음 열리는 대회라 한 해를 기쁘게 볼 수 있는 자리로 3·1 마라톤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뜨거운 열기속에 매년 김연범, 이상훈, 심상옥, 문홍주, 김재룡 등 쟁쟁한 스타들이 탄생하면서 대회가 열리는 3월1일이면 선수들의 질주를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의 행렬로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출발선언이든 옛 도청 일대는 물론 연도마다 시민들이 몰려 나와 선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정광고, 서석고, 조대부고, 광주상고 등 학교 자존심 대결도 펼쳐지면서 응원전도 뜨거웠고, 전일 방송을 통해 대회가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3·1마라톤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리던 짜릿한 기분은 여전히 진한 감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의 중요한 역사로 남아있는 3·1마라톤은 육철수씨 개인에게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초등학교 시절 핸드볼을 했던 그가 육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처녀출전한 대회도 3·1 마라톤이었다.

"어렸을 때 돌고개 근처에 살았는데 당시 대회 코스가 돌고개를 지나 송정리역을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앞을 달려나가는 선수들을 보면서 나도 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핸드볼 팀이 해체가 됐고 별 고민 없이 육상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육상부 유니폼을 입고 처음 나선 3·1 마라톤에서 입상을 하면서 육상인으로 변신한 그는 매년 3월이 되면 자신의 사진과 기사가 담긴 신문 스크랩을 꺼내보면서 당시를 회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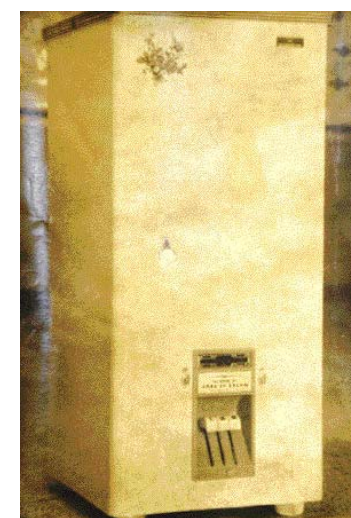
"이 지역 엘리트 선수들의 산실이자 마라톤 꿈나무들의 이상적인 대회였던 3·1 마라톤이 시간이 더해지면서 달리기를 사랑하는 모든 아마추어 선수들이 함께 하는 대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코스도 바뀌고, 양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달리기에 대한 사람들의 열정은 한결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마라톤에 대한 열정과 추억 속에 그는 또 다른 봄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975년

35세 최연소 도지사인 고건 전남 도지사가 출발 신호총을 쏘고 있다.



1975년 주부들이 정만하고 싶은 살림 일순위로 꼽히던 쌀통이 대회 1등 상품으로 등장했다.



1977년

응원 나온 할머니가 손자의 완주를 축하하며 얼굴을 닦아주고 있다.



1971년

1971년 대회에 참가했던 중·고생들의 까까머리와 뒷편 본사 주최 미인선발대회 아치가 눈길을 끈다.



1974년

코스주변 음수대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절, 결승선에 들어온 선수들이 양동이에 담긴 물을 바가지로 떠 마시고 있다.